

永承 蔣國棟
發行 蔣國棟
印刷 蔣國棟
主編 蔣國棟
編輯 蔣國棟
發行所 今川町100
電話 8131-9
本社直通 8577

祝 東大新聞 創刊32周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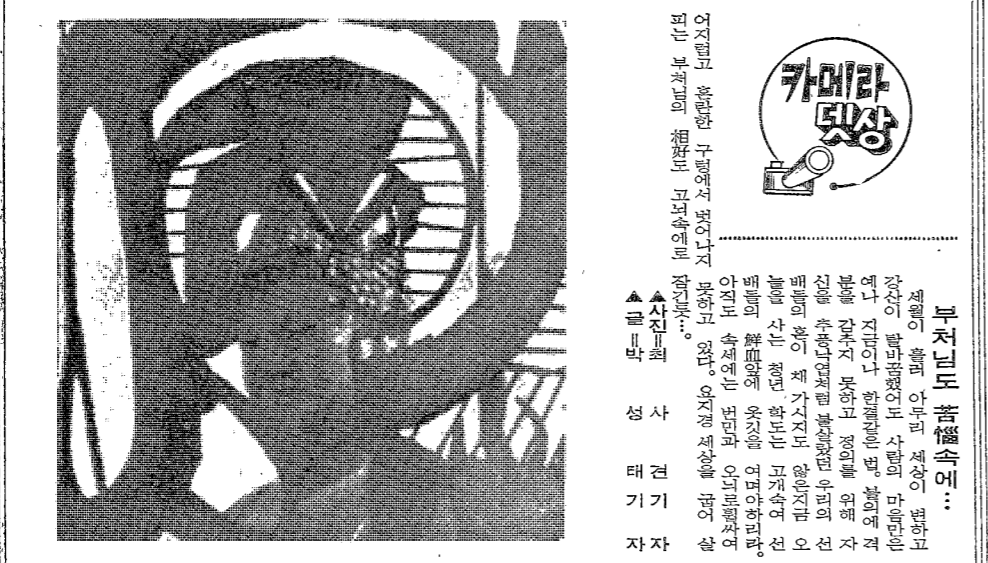
다양한 新人會員 맞이

에년보다 新入生 써클참여 저조



佛敎學生會 佛敎學生會는 佛敎敎徒의 精神을 培양하고 佛敎敎義를 弘揚하기 위하여 佛敎敎徒의 精神을 培양하고 佛敎敎義를 弘揚하기 위하여...

佛敎學生會 佛敎敎徒의 精神을 培양하고 佛敎敎義를 弘揚하기 위하여 佛敎敎徒의 精神을 培양하고 佛敎敎義를 弘揚하기 위하여...



부천대학 佛敎敎徒의 精神을 培양하고 佛敎敎義를 弘揚하기 위하여 佛敎敎徒의 精神을 培양하고 佛敎敎義를 弘揚하기 위하여...

東國祝典 일정 발표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東國祝典 일정 발표

登山大會 일정 발표

本校 16日, 慶州大 23日 各各 舉行

경주대 中間考査 일정

26日부터 30日 까지

東國祝典 일정 발표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東國祝典 일정 발표

登山大會 일정 발표

本校 16日, 慶州大 23日 各各 舉行

경주대 中間考査 일정

26日부터 30日 까지

우리 민족의 저력과 슬기는 重工業立國의 의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에 관한 고등교육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이 있어도 기술자는 없었던 시기였고, 우리 조국은 일본의 예속물로서 독자적인 조선업을 발달시킬 수가 없었다.

그러나 8.15해방을 맞이하여 일본이 패수해 갔을 때, 몇몇 조선인의 빈약한 전제만이 남아있었고, 더구나 남북이 분단됨에 따라 년조선은 2천년에 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 후 오해도록 조선 공업이 발달한 것도 이러한 때에 일치하며, 그나마의 사실마저도 6.25의 전란으로 파손되어, 조선공업을 일으키려던 정부의 노력은 자금난과 갖가지 악조건하에서 절체를 거듭했다.

그러나 우리 조국은 5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60년대 후반까지도 우리나라의 조선기술은 낙후성을 면치 못했다. 그 이후 사실 확충과 함께 상당 규모의 선박이 건조되었다. 아직도 세계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고, 막대한 자금과 선진기술을 요하는 현대식 배의 건조는 요원하게만 느껴졌다.

세계 2위를 기록했다. 한국조선공업의 70%를 점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연건조능력 950만톤, 최대선조능력 100만톤을 갖추고 각종 유조선, 벌크선, 자동차운반선, 컨테이너선, 화물선등을 건조하면서 조선기술의 축적과 혁신에 힘써 국산화율 80%까지 끌어올린 경제선형인 각종 표준선을 개발, 세계선박시장에 선 보이고 있다. 뿐만아니라 현대중공업은 조선분야의 이에도 각종 산업플랜트, 해양석유개발 생산에 필요한 시추선, 플랫폼 및 해양구조물 등을 제작 수출하여 한국경제의 기관차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치 않고 세계정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한국조선공업은, 피속해 매번의 살아호르는 우리 조상의 슬기를 이어받아, 조선업국의 의지를 성실히 구현해가고 있는 것이다.

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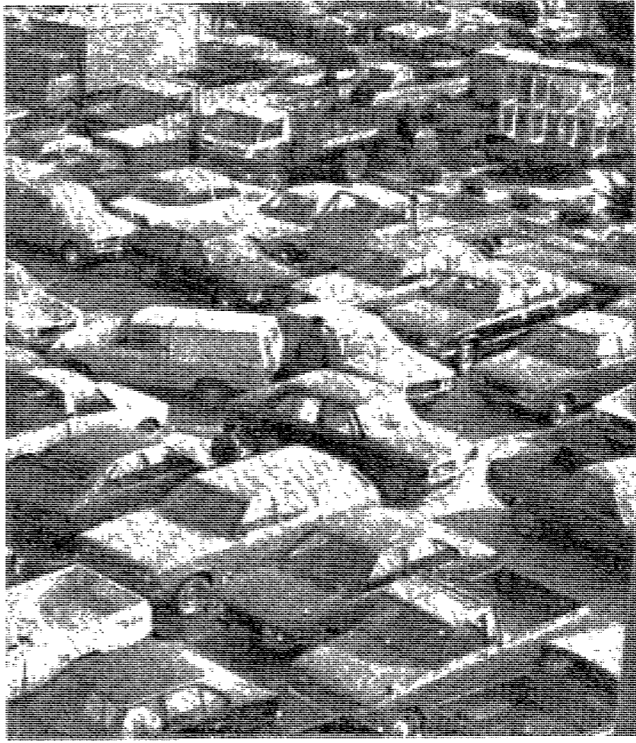
先進國이 겪는 환경적 손실 담습 말아야

市民 우선 行政 관광객에도 도움

先進國이 겪는 환경적 손실 담습 말아야

先進國이 겪는 환경적 손실 담습 말아야

先進國이 겪는 환경적 손실 담습 말아야



서울의 도시개발과 교통망의 발달을 보여주는 사진

先進國이 겪는 환경적 손실 담습 말아야

先進國이 겪는 환경적 손실 담습 말아야

先進國이 겪는 환경적 손실 담습 말아야

先進國이 겪는 환경적 손실 담습 말아야

先進國이 겪는 환경적 손실 담습 말아야

先進國이 겪는 환경적 손실 담습 말아야

先進國이 겪는 환경적 손실 담습 말아야

先進國이 겪는 환경적 손실 담습 말아야

先進國이 겪는 환경적 손실 담습 말아야

先進國이 겪는 환경적 손실 담습 말아야

先進國이 겪는 환경적 손실 담습 말아야

先進國이 겪는 환경적 손실 담습 말아야

점점 그들의 지성

점점 그들의 지성

점점 그들의 지성

점점 그들의 지성

독재 권력 앞에 눈물 흘리던 60년의 봄

독재 권력 앞에 눈물 흘리던 60년의 봄

독재 권력 앞에 눈물 흘리던 60년의 봄

독재 권력 앞에 눈물 흘리던 60년의 봄

독재 권력 앞에 눈물 흘리던 60년의 봄

독재 권력 앞에 눈물 흘리던 60년의 봄

독재 권력 앞에 눈물 흘리던 60년의 봄

독재 권력 앞에 눈물 흘리던 60년의 봄

독재 권력 앞에 눈물 흘리던 60년의 봄

독재 권력 앞에 눈물 흘리던 60년의 봄

독재 권력 앞에 눈물 흘리던 60년의 봄

독재 권력 앞에 눈물 흘리던 60년의 봄

독재 권력 앞에 눈물 흘리던 60년의 봄

단순한 지식人 보다는 知性人이 되어야

단순한 지식人 보다는 知性人이 되어야

단순한 지식人 보다는 知性人이 되어야

단순한 지식人 보다는 知性人이 되어야

단순한 지식人 보다는 知性人이 되어야

단순한 지식人 보다는 知性人이 되어야

단순한 지식人 보다는 知性人이 되어야

단순한 지식人 보다는 知性人이 되어야

단순한 지식人 보다는 知性人이 되어야

단순한 지식人 보다는 知性人이 되어야

단순한 지식人 보다는 知性人이 되어야

단순한 지식人 보다는 知性人이 되어야

단순한 지식人 보다는 知性人이 되어야

단순한 지식人 보다는 知性人이 되어야

단순한 지식人 보다는 知性人이 되어야

단순한 지식人 보다는 知性人이 되어야

단순한 지식人 보다는 知性人이 되어야

단순한 지식人 보다는 知性人이 되어야

단순한 지식人 보다는 知性人이 되어야

柳韓洋行 柳韓洋行 柳韓洋行

1971년 어느날
신문을 받아든 사람들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柳韓洋行 柳韓洋行 柳韓洋行

나의 全財産 學校財團에

柳韓洋行 柳韓洋行 柳韓洋行

柳韓洋行 柳韓洋行 柳韓洋行

柳韓洋行 柳韓洋行 柳韓洋行

